

한반도, 새 시대 열렸다



**윤위중의
잠시 심포**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러나 이런 소원은 이제 접어야 한다. 2018년 6월 12일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합의 이후 한반도는 이전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고의 저 깊음 근저에는 '통일'이란 단어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늘 갈라졌다 합쳐졌다를 반복해왔다. 그래서 6·25 전쟁 이후 갈라진 한반도도 언젠가는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는 무의식이 자리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한반도는 늘 '분단'을 전제로 논의가 돼 왔다.

하지만 북한이 체제보장과 비핵화를 맞바꿨다면 이제는 무조건 통일을 외칠 수 없다. 북한도 하나의 국가이자 체제로 인정하고, 통일보다는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는 여러 분야에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물려 올 것이다. 해방 이후 70년 가까이 우

리 발목을 끈질기게 잡아왔던 거대하고도 뿌리깊은 족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외교, 국방, 안보 등등 모든 패러다임이 근본부터 다시 정립될 것이다. 서울에서 45km 정도, 바로 코 앞에서 우리를 위협했던 총과 대포가 대거 사라질 것이다. 특히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란 협박도 이전 사라질 것이다.

국회의 헌법개정 여부가 어찌 될 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주적(主敵)도 더 이상 북한이 아닐 수 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2년 이상의 시간을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에 대비하며 허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남북을 갈라뺐던 저 철책들은 휴전선(休戰線)이 아니라 국경으로 바뀔 수 있다. 곧 있을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남과 북은 1953년 이후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휴전 관계가 아니라 전쟁을 완전히 끝낸 공존 관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의 연간 예산 428조8626억원(2018년 기준) 가운데 10%나 차지하던 국방예산의 상당수가 국민을 위한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일부 정치인들이 북한을 끌어들이며 '안보 프레임'으로 국민을 속이며 자신들의 위기에서 벗어났던 행태도 사라질 것이다. '반미'와 '미군철수'를 주장하던 급진 단체들의 명분도 줄어들 것이다.

경제분야에서도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예고된다. 당장 개성공단이 재개될 희망을 찾았고, 금강산 관광부터 건설·제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가 물꼬를 틀 수 있다. 남한에서 시작된 기차길이 북한을 지나 러시아로, 중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실크로드가 탄생하면 한반도가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남과 북이 서로 총부리를 맞대는 대신,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면 한반도에 '불황'이란 단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대치가 아니라 협력을 하면 서로 얻는 것이 상상 이상으로 많아지게 된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국이 얻은 건 없고 북한만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전쟁이 아닌 협상에서 일방적인 건 있을 수 없다. 미국이 그렇게 어리숙한 나라가 아니거니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란 평가도 그냥 나온 게 아니다.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문 서명 이후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이라고 말했다. "세상은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회담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대장정의 첫 발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속담처럼 이번 회담을 폄하하기보다는 모두 함께 차근차근 평화를 위한 주춧돌을 쌓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대한민국을 넘겨주는 지금 세대들의 의무다. /산업부장 yhj@metroseoul.co.kr

코트라, 아태지역 최우수 투자유치기관상

2016년부터 3년 연속 수상

코트라(KOTRA)가 미국의 FDI(외국인직접투자)·부동산 분야의 권위있는 전문지 사이트 셀렉션 매거진으로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우수 국가 투자유치기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이후 3년 연속 수상이다.

사이트 셀렉션 매거진은 매년 5월 특집호를 통해 전 세계의 국가 및 지역별 20여 개 투자유치기관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다. 수상 대상 기관은 매년 1000여명의 기업 전문가와 컨설턴트가 투자 인콰이어리 대응 전문성, 임직원의 업무 전문성과 언어능력, 투자가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도, 투자 사후 관리 서비스, 웹사이트 등을 통한 정보 제공성 등 다양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전 세계의 투자유치기관을 평



미국 사이트 셀렉션 매거진이 주는 아태지역 최우수 국가 투자유치기관상패. /코트라

가해 선정한다.

우리나라의 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은 229억4000만달러(신고기준)로 지난 2016년보다 7.7% 증가해 3년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사이트 셀렉션 매거진에 따르면 이 같은 탄탄한 외투 유치 성장세를 보여준 것이 이번 수상의 주요한 이유가 됐다. /정영우 기자 yw964@



롯데닷컴, 국가지속가능경영대상 '공정위원장상' 온라인종합쇼핑몰 롯데닷컴이 제12회 국가지속가능경영대상 시상식에 기업윤리부문 최고상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롯데닷컴 김경호 대표이사(오른쪽에서 세번째)와 임직원들이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닷컴

썩썩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기지 수첩
한 용 수
(정책사회부)**

지난 8일 오전 7시 사전투표소 현장. 이른 시간부터 한 표 행사를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투표소 앞에 후보자 포스터라도 가져다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멘 소리가 들려올 즈음, 주변을 보니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다. 후보자 검색하기다. '도대체 누구 뽑으라는 건지'라며 혀를 차며 하는 말도 들렸다. 7~8명을 뽑아야 하는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20.14%)이 지난해 대선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로 집계됐지만, 한편에선 아쉬움이 많다.

이번 선거의 키워드를 묻는다면, '묻지

마 선거', '깜깜이 선거'다. 남북 분단 이후 70년 만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슈는 선거 마지막날 까지 메인 이슈로 이목을 끌면서 선거가 묻힌 맛도 있지만, 빈약한 공약을 내놓고는 네거티브에만 골몰하는 후보자들이 기여한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특히 '누굴 찍으면 누가 된다', '○○씩만 찍으면 된다' 등의 발언에는 말을 잃게 만든다. 정책이나 인물에 대한 소개보다는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내가 올라간다는 인식과 표판 구걸하는 행태는 우리 정치 수준을 또 그대로 드러냈다.

깜깜이 선거는 특히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정당 공천도 없고 번호도 없으며 각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선 외교·자사고 등 '특목고 정책'을 제외하고 천편일률적으로 같다. 보수·진보 성향 가릴 것 없이

'혁신 교육'을 한단다. 흡사 '받아 쓰거나 '베껴 쓰기'다. 다른 당의 좋은 공약을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공약을 보면 최소한의 고민이 있었는지도 의심이 간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각 후보간 물고 물리는 고소·고발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선거가 끝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사안이 대다수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당신이 돼야 정책이든 뭐든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부터 다시 봐야 할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촛불 혁명'을 통해 국민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준 뒤 첫 열리는 선거다. 그때만인지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시민들의 투표 열기는 높아진 반면, 정치인들의 뒤떨어진 선거 행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hys@



비비고 글로벌 서포터즈 '여름 보양식 쿠킹클래스' CJ제일제당 비비고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CJ제일제당센터 CJ터키친에서 개최한 '비비고 글로벌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여름 보양식 쿠킹 클래스'에서 참가자들이 비비고 가정간편식을 활용해 직접 여름 보양식을 만들고 있다. /CJ제일제당

무형문화재 '강강술래' 박양애 보유자 별세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 '강강술래' 박양애 보유자(사진)가 노환으로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별세했다. 향년 83세.

강강술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절인 설, 대보름, 단오, 백중, 추석 등에 연행된다. 노래,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종합예술로서 춤을 추는 여성 중에서 노래를 잘하는 한 사람이 선소리를 하면 모든 사람이 뒷소리를 받는 선후창의 형태로, 노랫소리에 맞춰 많은 여성이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임진왜란 훨씬 이전부터 전해 내려왔다고 하며, 임진왜란 때는 일종의 군사 전략으로 활용됐고, 임진왜란 후에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



1966년 2월 15일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됐으며, 2009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고(故) 박양애 보유자는 1975년 국무총리상, 1976년 대통령상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 강강술래 보유자로 2000년 7월 22일 인정됐다. 유족으로는 2남 3녀가 있다.

빈소는 전남 해남군 내면 우수영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14일 오전 9시 30분이다. 장지는 목포시 목포주묘관 휴다. /오진희 기자 valere@

인사

- ◆국가보훈처 ◇과장급 정보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장숙남 △대전지방보훈청 총북북부보훈지청장 우진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이영열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1721-9800, FAX: 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 9826
독자센터	021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0206
	2002년 5월 28일 제397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 3월 09일 제0070호

부음

- ▲권성욱씨 별세, 김낙영(청주시 흥덕구 강서 2동 팀장)씨 장인상 = 12일 오후 11시 20분, 충북 괴산 동부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30분. 043-834-4040
- ▲박하일씨 별세, 박경렬(주식회사 통소프트 대표이사)씨 부친상 =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75 선한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 062-361-1444
- ▲정옥자씨 별세, 고창민(삼일농약사 대표)·창수·창우·창우·창희·경희·경순·경애·경란·경신·경연·경식씨 모친상, 양동철(서귀포농업기술센터)·김성철·김상돈(광주광역시관광협회 부장)·최병인·김현중(제주일보 정치부장)·류성철·홍석재씨 빙모상 = 12일 오후, 제주시 하귀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7시. (064)798-8800.



화장품 원료의 세계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퍼스널 케어 원료 전문 전시회 '2018 인-코스메틱 코리아'에서 방문객들이 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